

하나님의 사람, 대천덕

10주기를 맞은 대천덕 신부님의 삶을 돌아보며

☞ 양영호 원장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제가 대천덕 신부님을 처음 보았던 것은 1978년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때 신부님은 제가 다니던 한국과학원(현 KAIST) 축제에 특강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신부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2001년 11월, 밴쿠버에 있는 저의 집에서 신부님 부부를 마지막으로 뵈 때까지 34년간 저는 예수님을 스무 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비록 1997년, 우리 가족이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사역을 위해 캐나다로 이주하면서부터 자주 방문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원은 늘 마음의 고향이었고, 신부님은 저의 멘토였습니다.

신부님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신부님은 막 60세 고개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신부님은 60세부터 세상을 떠나시던 때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신부님의 마지막 24년을 지켜보았으며, 그분의 원숙한 모습만을 기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인생의 추수기이므로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노년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부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신부님의 모습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말씀 중심의 사람

신부님은 말씀에 충실한 복음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늘 말씀의 잣대를 사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전문 신학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신부님은 한 평생 성경 원어 사전을 가까이에 두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의 깊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신부님은 경직된 문자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신부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았고, 상황화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이 기독교 대학에 대해 유난한 열정을 가지셨던 것도 말씀에 근거한 교육과 학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인젠가 기독교대학살림동역회(이하 동역회) 몇몇 지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신부님은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기독교대학 교수들 모임에서 신부님이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어떻게 성경이나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시킵니까?"라고 물었을 때

때문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은 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거나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낙태로 죽어간 어린 생명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삼베조각을 앞가슴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신부님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찬송가의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찬송가를 보면 사회에 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한두 곡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사회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정부와 사회, 가난한 자, 사회적 갈등, 전쟁과 같은 실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찬송가에는 단지 천국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신부님은 말만 앞세우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는 분이셨습니다!

3. 신학적 포용의 사람

신부님은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폭넓은 영역에서 사셨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폭의 배경에는 신부님의 교단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원래 신부님은 장로교 배경의 가정에서 자랐으나 선교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과감하게 장로교를 떠나 성공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공회의 사발적인 영국의 종교개혁도 정치 상황과 신화 운동이 결합하여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공회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루터의 사상이, 나중에는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종교도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성공회는 세계 성공회의 일치는 물론 다른 개신교단들, 로마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다른 교단들과의 교제와 일치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성공회의 신학적 포용성으로 신부님은 개신교의 여러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신자들까지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다. 실제로 예수원에는 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신부님의 태도는 자신과 일치가 조금만 다르면 이단 시비를 일삼는 작금 한국 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4. 성령의 사람

신부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온전한 성령운동을 제창하셨고, 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현대의 성령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던 데 반해, 신부님의 성령운동은 성격적 토지운동을 비롯하여 낙태반대운동, 환경운동, 빈곤퇴치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데 신부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신 분입니다. 신부님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기도와 성령"이라고 주장하며 기도와 성령 안에서 "경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부님은 의식적으로 진정한 성령운동과 사회정의의 위한 노력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잠시라도 예수원에 있어본 적이 있는 사람에겐 제가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것만들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령을 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신부님은 "사회복음(Social Gospel)과 "순복음"(Full Gospel)이 협력하지만 했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교운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지구를 휩쓸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님이 지향하신 "사회복음"과 "순복음"의 결합, 어쩌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향하는바 온전한 복음이 아닐까요!





5. 진리와 사랑의 사랑

신부님은 사랑과 진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 신부님은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과 타락을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을 비판하게 되면 예수원이 물결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대

신부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부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지도자들의 악행과 부패를 지적하면서도 한 번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 불결적 탐욕, 명예욕 등을 지적하면서도 특정 한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은 지도자들의 악행과 부패를 지적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은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흠 없는 삶을 사셨지만 부패한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는 마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이따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죄와 사랑을 분리하여 죄는 미워히도 죄인은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착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신부님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한평생 진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6. 연구하는 사람

신부님은 한평생 연구하는 학생으로 사셨습니다. 때로 신부님은 학문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해박하고 늘 지적 호기심이 넘었습니다. 신부님은 성경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성경만 읽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하시며 골짜기에 계시면서도 국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신부님은 이후 천국에 와서 자신을 찾으러가는 천국 도서관 시고에 오라는 농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은 독서에만 부지런하신 것이 아니

라 세계의 중요한 학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셨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부님은 머리지 않은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강요에 의한 공부, 과도한 과외공부에 켜들어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지적 회색과 관솔이 되어버리는 우리네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신부님은 한평생 부지런한 구도자의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엄청난 학문적 박식하였고, 그래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는 물론, 가정 문제나 남녀 문제, 각종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의 막힘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이 전문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한평생 과학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늘 신학이나 신앙은 과학과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실험을 해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신앙적 회의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 남게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과감하게 실험해 보라고도 진하셨습니다.

7. 세속 욕망에 초연한 사람

신부님은 세속적 욕망에 초연하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수 년 동안 저는 어느 변호사와 더불어 사단법인 예수원 이사회의 감사를 맡으면서 예수원 실행살이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예수원의 재정상태가 비방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신부님의 신학과 영성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도 그가 세속적 명예나 물질을 탐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신부님 내외분이 미국에 안식년을 가 계시는 동안 예수원을 방문했다가 예수원의 배려로 신부님 침실에서 수일간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침대는 꽤 거대하고, 매트리스는 험일으며, 방은 침대보다 약간 더 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이런 작은 침대에서 키가 크신 신부님이 어떻게 주무셨을까?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부엌은 제가 세 상에서 본 가장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출간

한 저의 수필집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엌』은 바로 신부님의 부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좁고 불편한 방에서 한평생을 사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부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손님을 대접하셨는지...

8.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

마지막으로 신부님은 솔직하고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예수원 저녁 기도시간에 신부님은 예수원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도 지난 후에 예수원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섬섬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들을 미워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원 식구들과 수련생들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원 식구들이나 수련생들에게조차 용서를 구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적하면 말든 이틀판과 같은 수련생을 앞에도 주저 없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신부님의 겸손이 오늘이 오날의 예수원을 있게 한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한 신부님의 모습은 권위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가문의 신교사로서, 예수원 창립자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신부님은 늘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신부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뉘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훌륭하면서도 문턱이 낮은 분이 계시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신부님의 깨끗한 삶이나 해박한 지식, 깊은 영성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 같은 신부님을 보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모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신부님의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은 예수원 식구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마음을 열어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아쇠였습니다.



양승철 VET(반부패)특교계(대법관) 원장, 경북대 물리학과(KASIT) 물리학과에서 한반도 물성을 연구했으며(M.S., Ph.D.)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과학사(M.A.)를 공부했으며, 반도제 물리학 연구에 정조, 기독교세계관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말리학과 역사』, 『과학사와 과학교육』, 『정조는 대장군』, 『기독교적 세계관』, 『성조와 진화』, 『한신과 광기』 등이 있다.



대법관 신부님의 현재 모습

이제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쓴 글을 뺏어야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난 며칠 동안 신부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신부님이 떠나신 지 10주기가인 해이고, 지난 4월 6일에는 영원히 꽃다운 청춘으로 남아계실 듯했던 현재의 사모님마저 신부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육신은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신부님과 사모님! 지금이라도 예수원에 가면 큰 웃음으로 맞아주시길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은 천국에 가시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가셨지만 두 분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계시신 두 분을 생각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압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강주들을 속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